



이름:

WEEK 23

Jun 2

사무엘상 25장

다윗은 그가 있는 곳에서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나발은 그 보호를 받는 부유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에게서 약간의 답례를 기대했던 다윗은 거절당하자 예전의 그답지 않게 마음이 상해 응징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나발의 아내이자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말 한 마디는 다윗으로 하여금 복수의 칼을 거두게 하였고, 이 소식을 알게 된 나발은 스스로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가(37절), 한 열흘 후에 누가 나발을 치셔서 나발은 죽게 되었나요?(38절)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살리는 24장과 26장 중간에 위치한 본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고하게 붙들었던 다윗이 왜 여기서는 복수의 칼을 휘두르면서 행동을 하려고 했을까요? 오랜 쫓김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고갈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참을성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거절 당해도, 욕을 먹어도 그대로 갚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세요.

사무엘상 26장

24장에 이어 본장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를 갖지만, 여호와께 기쁨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존경으로 그를 다시 살려줍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져가나,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Jun 3

사무엘상 27장

계속되는 도피여정에 지친 다윗은, 차라리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합니다. 아기스 왕의 허락을 받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몇 년동안 살게 되었나요?(6-7절)

*블레셋에 있었던 기간동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남방에 있는 그솔, 기르스, 아말렉 족속을 쳐서 약탈하며 살았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는 유다와 그 근처에 있는 족속들을 약탈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나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야 했습니다. 비록 사울의 손에서는 벗어났지만, 거짓말로 살아남은 블레셋에서의 1년 4개월은 다윗에게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어서 블레셋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27장에 이어 28장-31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기록합니다.(이 전쟁으로 사울은 전사하고, 다윗은 유다로 돌아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에 모여 진 쳤을 때, 막다른 골목에 선 사울이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묻게 됩니다. 그러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시자 어떤 방법을 취하나요?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위입니다. 신명기 18:9-14)

Jun 4

사무엘상 29장

본장은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블레셋의 군대로 참여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기록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겨우 정착하여 가족과 안정된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은 선택을 미룬 채 아벡으로 가는데, 이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좋게 여겨 전쟁에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누가 적극적으로 반대 하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벡으로 가는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블레셋의 안정된 삶을 포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비겁한 마음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Jun 5

사무엘상 30장

29장에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다윗이 없는 틈을 타 아말렉이 시글락을 습격하고, 아내와 자녀를 사로잡아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9장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바로 30장에서 이런 기가 막히는 상황에 부딪힌 다윗은 아말렉을 쫓아가 아내들과 자녀들을 도로 찾고, 전리품도 획득합니다. 시편 40:2절에는, 이런 기가 막히는 상황에서 드리는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 위에 두사 내 걸음을 ()하게 하셨도다."

*우리 인생가운데서도 많은 위기들과 절망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다윗의 상황과 시편의 기도를 기억해 봅시다.

사무엘상 31장

마침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길보아 산을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전사합니다. 29장에서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을 본인의 손으로 해하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장사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이 사람들은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힌 후 첫 번째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로, 사울에게 은혜를 갚는 모습입니다.)

Jun 6

사무엘하 1장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크게 슬퍼하며 활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이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내 형 ()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우리를 대적했거나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의 실패나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게 되는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장

사울은 죽었지만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려 7년이란 세월이 걸려서 다윗은 왕위에 오를 수 있었고, 그 7년 동안은 이스라엘 내에 두 사람의 왕이 존재하여 내전으로 얼룩진 가장 어두운 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지파의 왕이 되고,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의 넷째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 두 세력간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오랜 기간동안 계속된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3:1절을 써 보세요.

Jun 7

사무엘하 3장

본장은 정치와 음모로 가득 찬 이야기입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와 통간했는데 이를 지적한 이스보셋의 말을 분하게 여긴 아브넬이 베냐민과 이스라엘을 다윗의 통치로 넘기기로 작정합니다. 헤브론으로 간 아브넬은 다윗을 만나고 평안히 돌아섰으나,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다윗은 그런 아브넬을 장사하며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요압은 사적인 복수에 사로잡혀 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할 수만 있으면 피 흘리기를 그치고 평화롭게 나라를 세워가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원수 갚는 일과 피 흘리는 일을 피함으로써 얻은 것은 백성들의 신뢰와 사랑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하므로"

사무엘하 4장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은 이스보셋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스보셋에게는 아브넬 외에 베냐민 지파 림몬의 두 아들인 바야나와 레갑이라는 장군이 있었지만, 이들도 결국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죽여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투항합니다. 마침내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사울 왕가가 완전히 몰락합니다. 죽은 이스보셋을 헤브론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지내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